

국 어

해설위원 : 오대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방직 9급 국어 출제 영역]

출제 영역	문항 수 (2015)	출제 포인트(난도)
국문법	3(3)	[언어의 특징](하) [합성어](하) [어휘론](중) [품사-명사](중)
어문규정	2(5)	[한글맞춤법](하) [띄어쓰기](중)
속담과 한자	4(4)	[속담](하) [문맥에 맞는 한자] (하) [동자이음이의의 한자] (중) [문맥에 맞는 한자성어] (중)
비문학	7(4)	[말하기-토론] (하) [말하기-토의와 토론] (중) [쓰기-퇴고] (중) [글의 진술방식] (하) [독해-내용 파악] (중) [독해-중심내용] (하) [독해-내용의 추리] (중)
문학	3(4)	[고전산문] (하) [현대소설] (중) [현대소설-서사기법] (중)

[총 평]

1. 비문학과 한자의 강세, 국문법의 약세

꾸준한 공부할 한 수험생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다.

문법이나 어문규정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논리적인 글(비문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2015년도의 출제 경향과는 판이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비문학이나 한자에 약한 수험생들은 고전했을 테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합격생들은 고득점을 얻으리라 짐작된다. 난도 '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이다.

2. 국문법(난도 중2, 하2)과 어문규정(난도 중1, 하1)

'언어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비통사적 합성어 파악 문제, 문맥에 맞는 어휘 '계제'의 파악, 품사 명사 찾기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이 가운데 '명사 찾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수험생들이 다수 눈에 뜨인다. 의존명사 '한'과 조사 '이'가 붙은 명사 '독보적' 등이 문제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국문법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문규정과 관련된 문제로 '들르다'의 활용이나 '-예요/여요'의 활용이 한글 맞춤법 문제로 출제되었고, 조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가 출제되었는데 기존의 문제 유형에서 다른 점이 없이 쉽게 풀었을 것이다. 기존의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았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다.

3. 속담과 한자(난도 중2, 하2)

지방직 문제로 속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방식 하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속담의 구조를 잘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한자 2문제, 한자성어 1문제 역시 늘 나오는 문항수를 지키며 출제되었다. '충분(充分)'이나, 동자이음이의어 '否(부, 비)'의 쓰임에 대해 물었고, 한자성어 '후생가외(後生可畏)'가 문맥에 맞는지 물었다. 기출 한자나 한자성어를 꼼꼼하게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4. 비문학(난도 중4, 하3), 문학(난도 중2, 하1)

말하기로 '토론'과 '토의' 문제를 2개나 출제했다. 토의 방식 중 '패널'과 '심포지엄'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퇴고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접속어의 쓰임을 물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글의 진술방식 또한 쉽게 물었고, 중심 내용 찾기, 독해로 내용 파악이나 내용 추리 문제도 어렵지 않았다. 정신이 혼란하지만 읽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고전산문으로 '주몽신화'가 출제되어 내용 파악 문제를 냈고, 현대소설로 <광염소나타>의 구절의 의미 파악, <천변풍경>의 서사 기법을 물었다. 매우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5.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수험생들은 새로운 문제만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낭패를 부른다. 왜냐하면 9급 문제는 늘 기존의 출제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공부하고 정리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제 유형을 변형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성적을 살피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는 헛된 것이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다.) 기출문제를 응용한 다양한 모의고사를 보아야만 한다. 그것도 기출 유형을 그대로 잘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새 장마가 몰려온다. 뽀뽀한 여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출문제 해설 및 분석]

문 0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01. [정답] ③

[속담] 난도 하

속담의 의미는 속담의 문장 구조를 살피면서 의미를 추리해야 파악된다. 제시문에서 속담이 가난한 사람이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이르는 말이라 했다. 허세를 부리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것을 찾으면 당연히 '기와집 짓는다'라고 표현한 ③이 답임을 알 수 있다.

가난하므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함에도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싫어서 기와집을 짓는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는 속담의 뜻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0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02. [정답] ②

[어휘론] 난도 중

'개재(介在)' 介(끼일 개) 在(있을 재)로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을 뜻하여 문맥에 맞지 않다. 여기에는 '계제(階梯)'가 들어가야 맞다.

* 階(섬돌 계) 梯(사다리 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오답 피하기>

① 자생하다(自生--): 저절로 나서 자라다.

③ 成(이룰 성) 敗(깨뜨릴 패):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勝(이길 승) 敗(깨뜨릴 패):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④ 類(무리 유{류}) 例(범식 례{예}): 같거나 비슷한 예. 전례(前例)'라고도 함.
由(말미암을 유) 來(올 래{내}): 사물이나 일이 생겨나는 것.

문 0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타율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03. [정답] ①

[품사-명사] 난도 중

'타율, 한, 독보적, 기록' 등이 명사로 제시되었다.

* 타율(打率): 타격률(야구에서, 안타 수를 타격수로 나눈 백분율).

* 한: 의존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독보적: 명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명사이다.
cf. 비교적(부사. 용언 수식) 쉽다. 상대적(관형사. 명사 수식) 우위

* 기록(記錄): 명사.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세운 성적이나 결과를 수치로 나타냄. 특히, 그 성적이나 결과의 가장 높은 수준을 이른다.

<오답 피하기>

② '상자, 것'이 명사이다.

* 것: 의존명사이다.

* 깔끔하다: 형용사이다. '하다'가 접사이다.

* 정돈되다: 동사이다. '되다'가 접사이다.

③ '친구, 외, 사람'이 명사이다.

* 못되다: 형용사이다. '되다'가 접사이다.

④ '모퉁이, 얼굴, 이'가 명사이다.

* 이: 조사가 붙으며, 치아를 가리키는 명사이다.

a. '그런 이를 좋아하는구나.'에서 사람을 뜻하는 '이'는 의존명사이다.

b. '이는 좋은 일이다.'에서 '이것'을 뜻하는 '이'는 대명사이다.

c. '이 이상의 어려움은 없다.'에서 '이'는 '이것'으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대명사로 보아야 한다.

d.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니?'에서 '이'는 '사람'을 꾸며주므로 관형사이다.

* 저: 관형사이다.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cf. '저는 그를'이라 할 때의 '저'는 대명사이다.

문 0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04. [정답] ③

[문맥에 맞는 한자] 난도 하

充(찰 충) 分(나눌 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오답 피하기>

① '規定'이 쓰여야 한다.

規(법 규) 定(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規(법 규) 正(바를 정): 바로잡아서 고친다.

② '構造'가 쓰여야 한다.

構(엮을 구) 造(지을 조): 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일개
救(건질 구) 助(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④ '現象'이 쓰여야 한다.

* 現(나타날 현) 象(코끼리 상):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 사회현상(社會現象): 경제, 도덕, 법률, 예술, 종교 따위와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cf. 現(나타날 현) 像(형상 상): 1. <연영> 노출된 필름이나 인화지를 약품으로 처리하여 상이 나타나도록 함. 2.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냄. 또는 그 형상.
現(나타날 현) 狀(형상 상):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예)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이 든다.
懸(매달 현) 賞(상줄 상):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문 0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05. [정답] ④

[문맥에 맞는 한자성어] 난도 중

낮선 한자성어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에 배운 한자성어를 바탕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신입생들을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을 뜻하는 '상전벽해(桑田碧海)' 정도가 자연스럽다.

* 後(뒤 후) 生(날 생) 可(옳을 가) 畏(두려워할 외):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가히 두렵다.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는 '後生角兀(후생각울)'과 같은 뜻이다.

<오답 피하기>

① 口(입 구) 蜜(꿀 밀) 腹(배 복) 劍(칼 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

② 一(한 일) 敗(깨뜨릴 패) 塗(진흙 도) 地(땅 지):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

③ 首(머리 수) 鼠(쥐 서) 兩(두 양{량}) 端(바를 단):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

문 06.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사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영수는 보이스포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06. [정답] ①

[말하기-토론] 난도 하

민수는 개인에게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는 영수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 ② 영수는 소비자에게, 민수는 정부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두 사람은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영수는 소비자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 0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07. [정답] ②

[독해-중심내용] 난도 하

서양과 동양에서 ‘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언어 표현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서양과 동양은 모두 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서양에서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동양에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은 ②이다.

문 08. 다음 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 말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가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다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08. [정답] ③

[고전산문] 난도 하

㉡의 내용은 대소가 주몽의 재주를 시기하여 주몽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왕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금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말 기르기를 주몽에게 맡겼다는 얘기이다. (왕이 주몽에게 준마를 준 것은 아니고, 말을 기르라고 시켰는데 주몽이 그때 준마를 알아보고 그 말에게는 먹이를 잘 주지 않고 좋지 않은 말에게는 먹이를 잘 주어 살찌게 했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주몽이 준마를 얻으려고 대소와 모의했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해모수와 사통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뒤에 부모가 귀양을 보내게 되는 이유를 표현한 부분이다.
② 태양신인 해모수의 영향 속에서 유화가 아기를 갖게 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④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주몽이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임을 밝히며 황천후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목이다.

문 0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09. [정답] ③

[독해-내용의 추리] 난도 중

텍스트에 나온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 곧 타인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경향은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③에 나온 것처럼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와 유사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테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 몸매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궤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궤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궤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궤련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10. [정답] ②

[글의 진술방식] 난도 하

제시된 텍스트만 정확히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이다.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아야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이다.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 이어진다. 자문자답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시가’의 유행과 관련하여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④ ‘시가’가 유행과 ‘궤련’의 천대받는 현상을 비교하고 있다.(엄격한 의미에서 ‘비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대조’라는 표현을 썼어야 한다. 차이점을 들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하다’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다.’의 뜻이 있다. 글의 진술방식의 측면을 넘어서면 비교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문 1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열쇠, 새빨강다 ② 덮밥, 질푸르다
-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11. [정답] ②

[합성어] 난도 하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미’가 생략되었거나, ‘산들(산들 부는)바람’과 같이 부사에서 생략 성분이 많은 경우가 속한다.

* 덮밥: ‘덮(은)+밥’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질푸르다: ‘질(고)+푸르다’에서 연결어미 ‘-고’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열+쇠’에서 ‘열’은 ‘열다, 열고, 여니, 열로’ 활용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열로’ ‘열+르’(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서 어간의 받침 ‘르’이 탈락된 경우로 보아야 옳다. 따라서 ‘열쇠’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통사적 합성어로 봄이 타당하다.(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로 보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로 ‘길+짐승’, ‘날+짐승’도 있다.)
- * ‘새파랗다’는 접두사 ‘새-’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③ 감발: ‘감(은)+발’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다. ○ 감발: 예전에, 버선 대신으로 발에 감은 좁고 긴 무명을 이르던 말. 먼 길을 걸을 때나 막일을 할 때 흔히 이용했다.
- * 돌아가다: 연결 어미 ‘-아’가 쓰인 통사적 합성어다.
- ④ 젊은이: 젊은+이. 용언의 관형사형 ‘젊은’에 의존명사 ‘이’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 * 가로막다: 부사 ‘가로’에 동사 ‘막다’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다.

문 1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회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여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12. [정답] ③

[한글맞춤법] 난도 하

* ‘들르다’는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를 뜻하며 활용할 때 ‘들르다, 들르니, 들른, 들리’ 등으로 활용된다. ‘들려’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다’의 활용 형태로 ‘-예요/여요’를 써야 한다. ‘거예요/거여요’가 맞는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치르다’를 활용하면 ‘치려야’라고 써야 옳다. ‘치루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 * ‘대가(代價)’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사이시옷을 써서는 안 된다.
- ② ‘뒤쳐지다’가 기본형이다. ‘뒤쳐진’이라 써야 옳다.

* 뒤쳐지다[뒤:쳐지다]: [동사]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

* 뒤쳐지다[뒤쳐지다]: [동사]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

예) 화투짝이 뒤쳐지다

* ‘내로라하다(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가 맞고 ‘내노라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④ ‘잠그다’를 활용하여 ‘잠가’라고 써야 옳다. ‘으’ 탈락 규칙 용언으로 ‘잠그다, 잠가, 잠갔다’와 같이 활용된다.
- * ‘생각지 못했다’는 맞는 표현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안울림소리 ‘ㄱ’으로 끝났으므로 ‘-지, -건대, -잖다’ 등이 붙어 ‘생각지, 생각건대, 생각잖다’ 등으로 쓰인다.

문 1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13. [정답] ①

[띄어쓰기] 난도 중

조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묻고 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앞의 관형어와 띄어 써야 옳다.

* 지금으로부터: ‘으로부터’(‘로’를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으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말이다.)’가 조사이므로 ‘지금’이라는 명사에 붙여 써야 옳다.

* 십여(수관형사+접미사)㉮년(의존명사.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관형어로 처리됨)㉮전(前. 의존명사. ‘만’, ‘차’ 등도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옳다.)

<오답 피하기>

- ② 정한(관형어)㉮대로(의존명사)
- * 짤(관형어)㉮수밖에(의존명사 ‘수’에 보조사 ‘밖에’가 붙었다)
- ③ 요청(‘의’가 생략된 관형어)㉮시(의존명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함.)
- * ‘재조정하여야’라고 붙여 써야 한다. ‘재조정하다’가 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 ④ ‘추진력마저’라고 붙여 써야 한다. ‘마저’는 보조사이다.

마저

[부사] 남김없이 모두. 예) 컵에 물을㉮마저 따르다

[조사]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예)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 ‘감당할㉮만한 / 감당할만한’의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본용언 ‘감당할’과 보조용언 ‘만한’이 결합된 경우로 붙여 써도 된다.

* ‘능력뿐㉮아니라’라고 써야 한다. ‘뿐’이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문 1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 길러진다. 따라서 ㉣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14. [정답] ②

[쓰기-퇴고] 난도 중

단락의 퇴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㉔의 앞에서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㉔의 뒤에서 창의적 사고가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나’나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도 더’를 뜻하는 첨가의 접속어 ‘또한’은 부적절하다.

*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예) 우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선수 중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 그런데: 1.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예) 그들은 그 날 열한 시쯤에 커다란 밤색 말이 끄는 달구지를 타고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 일곱 명중에 낮익은 마을 사람 두 명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2.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끄는 접속 부사.

예) 동생은 벌써 숙제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서 놀 수가 없어요.

<오답 피하기>

- ① ‘탈피하다’는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를 뜻한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돌파(突破)하다: 1.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간다. 2.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 3.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 내다. 유의어 : 갱신하다2, 경신하다1, 깨다2

- ③ 주술 호응에 맞게 더욱 중요한 것은 ~ 길러진다는 점이다.'라고 쓰는 것이 맞다.
④ 앞의 문장에서 제시한 내용이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 15.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 ① 否認 ② 否定
③ 否決 ④ 否運

15. [정답] ④

[동자이음이의의 한자] 난도 중

‘ㅁ’은 문맥에 따라 ‘아닐 부, 막힐 비’ 등으로 읽힌다. ④는 ‘비운’으로 읽어야 합당하다.

* 否(막힐 비) 運(돌 운):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오답 피하기>

- ① 否(아닐 부) 認(알 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르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② 否(아닐 부) 定(정할 정):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肯(옳이 여길 긍) 定(정할 정)
 ③ 否(아닐 부) 決(터질 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문 16.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16. [정답] ③

[언어의 특질] 난도 하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다. 제시문의 밑줄 그은 부분은 인간이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며,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모두 드러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을 보이는 것은 ③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사과’라는 표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 ②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언어의 분절성을 설명하고 있다.

문 17.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 **패널 토의**는 3 ~ 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셋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셋강의 생태적 특성, 셋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셋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17. [정답] ④

[말하기-토의와 토론] 난도 중

‘찬반 입장을 나누어’ 말하는 방식은 ‘변증법적 토의 과정’을 말하는 ‘토론(討論)’에 대한 진술이다. ‘패널 토의’에 속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패널리나 심포지엄 모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② 토의의 목적은 ‘최선의 해결안을 얻는 것’이다. 패널과 심포지엄은 모두 토의이므로 이 진술은 합당하다.
- ③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진술도 합당하다.

문 18.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킨 그 음보를 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킨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립,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18. [정답] ④

[현대소설-서사기법] 난도 중

앞 부분에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감정의 재’만 있었다고 했다. ‘귀기’가 없는 것과 관련된 것이 ‘감정의 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을 보여주는 표현은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임을 알 수 있다.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 1930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중외일보(中外日報)>에 발표.
- 광포한 야성 때문에 술과 심장마비로 죽은 아버지와 교양 있고 어진 어머니 사이에서 주인공 백성수가 태어난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온순하였으나 가난으로 인해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방화(放火)를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야성적 천재성이 폭발하면서 ‘광염소나타’를 작곡한다. 이후에 그는 K선생의 배려로 작곡을 시작하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강한 자극이 없는 작곡을 못하게 된다. 그러자 그는 방화·사체유희(死體遊戯)·시간(屍姦)·살인 등을 저지르고 옥에 갇힌다. 이에 대해 작중 화자인 K는 그의 천재성을 사회 윤리 때문에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고 옹호한다.
- 예술을 위한 예술, 곧 예술지상주의적 색채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 서간체(書簡體)를 사용하고 액자소설적 구성(額子小說의構成)을 보여주고 있다.

문 1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참, 판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배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려서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인제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판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19. [정답] ②

[현대소설-서사기법] 난도 중

소설의 서사기법을 묻고 있다. 대화의 대상인 ‘둘째 대장’의 행위에 대해 한 사람이 말을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여 묻게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설명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두 사람의 관심사는 ‘거지 둘째 대장’이다.
- ③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 ④ 절충점을 찾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박태원, <천변풍경>

이 작품은 그 해 2월 초부터 다음 해 정월 말까지 1년간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일어난 하층민들의 생활 모습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파노라마처럼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연히 특정한 주인공이 있을 리 없다. 천변과 천변 근처의 상점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인 셈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띠고 있으나 독특한 시점이동이 돋보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보여주듯이 한 장면(그리고 특정한 인물)에서 다른 장면(다른 인물)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역동적인 것이다.

문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있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20. [정답] ④

[독해-내용 파악] 난도 중

재미있게 강의하던 인류학 교수가 열정적이며 흥미롭게 강의를 하게 되고, 그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점차 흥미를 갖게 되어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까지 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주문한 내용이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공감하는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④를 제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학생과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제목이 될 수 있겠으나 학생 간, 교수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부적절하다.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